

표 5는 아리수의 지역 및 연도별 생육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춘천에서는 발아기가 3월 28일이었고 만개기가 4월 25일 성숙기가 9월 19일이었으며 양양지역에서는 발아기가 3월 25일, 만개기가 4월 23일이었으며 성숙기는 9월 12일로 춘천에 비해 7일이 빨랐다. 또한 2016년 첫 수확한 평창지역에서의 아리수는 발아기가 4월 10일, 만개기가 5월 7일로 양양 및 춘천지역에 비해 늦어졌고 수확기도 9월 22일로 늦었다.

아리수는 강원지역에서 추석 선물용으로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품종으로 춘천과 양양지역에서는 성숙기가 9월 중순으로 추석 때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평창의 경우 2016년 1년 차의 결과로 보면 추석 이후인 9월 하순에 출하가 가능하여 추석이후부터 만생종 후지가 출하되기 전의 틈새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5. 아리수의 지역 및 연도별 생육상황

지역	연도별	발아기 (월/일)	만개기 (월/일)	성숙기 (월/일)
춘천	'14	3/26	4/21	9/28
	'15	3/29	4/28	9/16
	'16	3/29	4/25	9/12
	평균	3/28	4/25	9/19
양양	'14	3/28	4/26	9/15
	'15	3/23	4/22	9/14
	'16	3/24	4/21	9/6
	평균	3/25	4/23	9/12
평창	'16	4/10	5/7	9/22

표 6은 그린볼과 피크닉의 지역 및 연도별 생육상황을 나타낸 표로 그린볼의 경우 춘천에서의 발아기는 3월 28일이었고 만개기는 4월 24일이었으며 성숙기는 9월 22일이었고, 양양지역에서는 발아기가 3월 25일로 춘천보다 3일 빨랐고, 만개기가 4월 25일이었고 성숙기가 9월 15일로 춘천에 비해 7일 빨랐다. 그린볼과 아리수의 수확기가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녹색과피인 그린볼을 추석 선물용으로 적색과피인 아리수와 함께 출하하여 상품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농가 소득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피크닉의 경우는 춘천에서의 발아기가 3월 28일이었고 만개기는 4월 25일, 수확기는 10월 10일이었고 양양지역에서는 발아기가 3월 25일이었으며 만개기가 4월 24일, 수확기가 10월 2일로 춘천에 비해 8일 빨랐다. 피크닉은 추석 출하용 품종과 만생종인 후지 출하시기 사이의 틈새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품종이며 강원도와 같이 관광지가 많은 지역에서 단풍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종으로 상품화 가능성이 높았다.

표 6. 그린볼과 피크닉의 지역 및 연도별 생육상황